

1954

년, 빌 휴렛과 데이비드 팩커드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한 자동차 차고에서 '휴렛 팩커드'를 설립한 일화는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이 됐을 만큼 유명하다. 실리콘밸리의 탄생지(Birth-place of Silicon Valley)로 기록된 이 차고는 오늘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의해 역사적 기념명소 제976호로 지정됐다. 이는 휴렛 팩커드가 초우량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세계 최초의 벤처기업으로서, 실리콘밸리의 출현을 이끈 정보혁명의 산실이자 벤처기업의 성지에 대한 헌사라고 해야 옳다.

OVER THE VENTURE

벤처가 희망이다

글 _ 김기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벤처기업의 특성은 대략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기술 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이라는 점, 위험부담이 높은 반면 성공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 등이다. 한마디로 믿는 것 이라고는 신기술과 아이디어, 도전정신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에게서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기술·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투자 주도 경제에서 기술혁신 주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대량생산체제로부터 탈피해야만 한다. 그 해답이 바로 벤처기업이다. 환경변화와 기술혁신이 급속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는, 도전정신과 순발력이 뛰어난 벤처기업들의 활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들의 활약이 큰 몫을 했고, 이스라엘은 현재 정부 주도의 벤처

산업 육성으로 제2의 번영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의료생명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 진출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력과 도전정신만 가지고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취약한 비즈니스 인프라,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자금·인력 부족 등 벤처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고 있는 자금조달의 경우 창업 후 1~2년 내에 극심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정책도 이 시기의 벤처기업을 보호·육성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창업보육센터에서 그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천안 본원과 시화 창업보육센터에서는 50여개가 넘는 벤처기업들이 입주해서 생기원의 연구인력들과 함께 맘을 흘리고 있다. 갓 창업한 기업을 연구원 내에 입주시켜 기술개발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일체의 경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이 사업은 기업이 독립하기까지의 전 과정은 물론 독립 후에도 투자유치, 해외 박람회 참가, 국제 공동연구 지원 등을 펼친다. 수많은 벤처기업들의 성공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 경영 전략이 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 도전정신이 꽃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야 하겠다.